



2 월의 낙스(NAKS) 소식

[특별기획] 개교 50 주년 기념학교 소개

<워싱턴 통합학교 MD 캠퍼스> 50 주년을 돌아보며



교 장 추 성 희

말하는 이의 마음을 읽고, 들리는 소리의 이면을 읽고, 행간을 읽고, 보이는 것들 속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고... 참으로 우리 모두는 많은 것들을 읽으며 살고 있다. 그러한 읽기를 통해 나 자신의 모양이 갖춰가고 있고 삶의 내용이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24 년째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MD 캠퍼스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학교가 걸어온 지난 50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또 하나의 읽을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과연 이 글은 읽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 다만, 미국 본토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한국학교로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가 앞으로 재미한국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가리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 여기며, 우리 학교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워싱턴 통합한국학교(MD 캠퍼스)는 1970 년 6 월 20 토요일 초대 포항공대 총장인 고 김호길 박사와 워싱턴에 파견된 강성익 교육관이 한국 정부로부터 1 만 불의 지원금을 받아 워싱턴 DC 내에 소재한 Trinity college 에서 그 첫 문을 열었다. 설립 당시 '워싱턴 한인학교'라는 이름 하에 강성익 교육관을 초대 교장으로 모시고 지역사회 내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한국인 후세들에게 한국의 언어, 문화교육을 통하여 자긍심과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함으로써, 미국 및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교육목표를 갖고 시작한** 학교는 1988 년 지역 내 6 개 교회학교를 통합하여 '워싱턴 통합한인학교'로 성장했고, 그 후 2008 년 현재의 '워싱턴 통합한국학교'로 개명하여 50 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

1970.6.20
워싱턴 한인학교 설립
(Washington DC 소재 Trinity College 사용,
Washington DC정부로 부터 설립인가 받음)



설립자들과 학부모회의 후 기념 촬영
(앞줄 가운데 장극 초대이사장, 가운데줄 가운데 고 김호길 박사)



개교 당시 교사들 모습 (오른쪽부터 원덕중,
원인숙, 유점숙, 이경애 교사)

MD 캠퍼스에 이어 1989년에는 VA 캠퍼스를 개교하여 지역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1993년부터 본국 상사 주재원 및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 9월부터 MD 캠퍼스 고등부 재학생을 위한 Montgomery County 교육청으로부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과목 학점 인가를 받아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매년 0.5 학점을 수여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성적표에 기록이 되고 있다. 또한 1998년 8월에는 첫 장학제도를 설립하여 매년 12 학년을 마친 졸업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민족계승언어 배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1-2022 학년부터는 장학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좀 더 많은 재학생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MD 캠퍼스에서 2007년부터 시작한 ‘전문가와의 만남, 애국가 부르기 대회, 태극기와 한국 지도 그리기 대회’ 등은 현재 지역 내 거의 모든 한국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10년부터 보조 교사로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자원봉사를 인정해 주는 대통령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을 하여 매년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자원봉사상(PVSA)을 수여 하고 있으며, County Volunteer Center 에 등록하여 본교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지역 내 공립학교에서 SSL 을 (Student Service Learning)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후 2014년부터는 특별활동 시간을 방과 후 선택 활동으로 전환하고, 대신 정규 4 교시 수업 시간에는 모든 학년에 걸쳐 수준별 한국 역사문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최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한국학교로 거듭나야..
50 년의 워싱턴 통합한국학교의 이야기
또 하나의 출발점!**



초창기 학교 건물(Trinity college) 앞 기념 촬영(1972 년)



노랑반 학생들의 탈 만들기 수업



문화 수업 송편빚기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방문(2012 년)

COVID 19 으로 인한 수업방식변경으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는 온라인 개인별 한국어 수업을 통해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문가와의 만남’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대학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에 접어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그들의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전문분야에서 일하게 되기까지의 준비과정,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점, 앞으로의 전망, 그들이 느끼는 본인의 일에 대한 진솔한 생각 등을 나누며 자칫 좁아진 학생의 시야를 넓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학교가 소재해 있는 지역적 특성상 학부모 가운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시기에 주로 그들을 강사로 모시고 있다.** 강사 선정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까운 친구 부모가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자 함이다.**

이 외에도 본교는 **학생의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도 인식하여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의 공립학교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대화법, 공립학교의

변화된 교육과정, 미국의 대입제도 등 학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문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학부모회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학교 대소사의 행사가 수월하게 치러지고 있고, 그러한 **학부모님들의 참여로 인해 학생들에겐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어 교육적으로도 사뭇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50 년 전 허름한 빨간 벽돌 건물에서 시작된 학교는 몇 차례 그 자리를 옮기는 여정을 거쳐 1988 년부터 현재까지 Rockville, Maryland 에 위치한 Earle B. Wood Middle School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30 여 년 동안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교의 현실이 때론 아쉬움을 지나 슬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자체 건물에 대한 소망은 요원한 소망으로만 그칠 것인가? 토요일 아침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 ‘우리 세대를 이어 미래를 만들고 이끌고 나아갈 이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미래를 향한 밝은 소망과 끊임없는 희망을 안고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군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이다. 세대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것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젠 **타 문화에 대한 인식과 그들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세계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해 가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한국학교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2 세대, 3 세대로 이어지는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최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국학교로 거듭나야 할 절실함이 작금의 한국학교에 요구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일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것들을 읽어 냄으로 자신을 형성해 가는 우리이기에 지난 50 년의 워싱턴 통합한국학교의 이야기를 읽어 냄으로써 또 하나의 출발점 상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본다.



'민속놀이 잔치' 행사 후 교사들과 학생들의 기념 촬영(2017 년)

이달의 명언

전화위복(轉禍爲福)



서북미협의회 회장 박수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2020 년이 마스크로 덮어버린 병든 세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모든 행사 일정이 연기가 되며 사람들마다 각기 믿음의 그릇대로 인내하며 준비 없이 치러진 2020 년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몸에 맞지 않는 기계의 힘을 빌려 나름 열심히 대처하며 매일매일의 기다림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전화위복(轉禍爲福)! 2021 년의 맞춤형 사자성어가 아닐까 한다.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던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다. 무관심하던 이웃을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었다. 답답한 마스크 덕분에 그동안 숨을 편히 쉴 수 있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하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 덕분에 말이다. 무관심하던 자연환경에 뒤를 돌아보게 되며 자연이 얼마나 아파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코로나로 숨을 거두는 모습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들숨에서 날숨에 멈추지 않게 됨을 감사하게 되었다. 항상 대면으로만 당연시하던 모든 수업, 미팅, 행사들이 비대면의 거대한 주어가 되어 다가온 온라인 방식에 우리는 대면 수업에 감사하게 되었다. 덕분에 컴맹이던 사람들마저도 화상 모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거리상 불가능했던 많은 모임이 지구를 화상 모임의 장터로 만들었다. 경험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큰 보물과 같은 재산이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 덕분에 잊고 살아가던 것, 당연시하던 것에서 감사를 알게 되며,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로 얻은 많은 경험은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큰 재산이 되리라 믿는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어두웠던 긴 터널은 이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이웃의 행복한 모습에 나도 행복해지는 훈훈한 새로운 세상을 그려본다. 2021 년은 우리의 웃음으로 세상이 치료되길 소망한다.

**코로나 때문이 아닌 코로나 덕분에
잊고 살아가던 것, 당연시하던 것에서 감사를...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경험하게 된다.**

알림사항

<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 자료 - 3.1 운동 (삼일절, Independence Movement Day)>

올해로 102 주년을 맞이하는 삼일절은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의 위상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 있는 기념일입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1 운동에 관한 다양한 수업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료에 이어 새롭게 PPT 영어 자막으로 상세한 교육 자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업자료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뜻깊은 역사교육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3.1 운동' 수업자료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2046-3-1>

